



AI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상승

젠슨 황, 다음 달 방한하여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 예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내주식 보유 비중 상향 결정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476.15pt (+3.55%)	1,074.80pt (-2.68%)	1,342.82pt (+3.89%)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06.90 원 (+12.2 원)	4.0740% (-7.3bp)	7,592.00pt (+0.1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4,042 억	+3,101 억	-432 억
외국인	-10,680 억	-174 억	+17,243 억
기관	+23,686 억	-3,006 억	-16,357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AI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도체 BIG2와 기판 업체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다음 달 초 방한하여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했던 요인들이 완화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 연장에 합의하고 트럼프의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수급 이탈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날 KOSPI는 3.55% 올랐고, KOSDAQ은 2.68%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73.7조원, KOSDAQ은 약 12.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1.1조원 순매도하면서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를 약 2.4조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기계/장비와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분야 협력 기대감에 LG그룹주, 현대차그룹주, NAVER 등이 상승했습니다. 기판 업체들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초 HBM4E 12단 샘플 출하 소식에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 시가총액 2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지분가치가 부각되며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조선, 방산, 원전주가 부진했습니다. 전선 및 전력기기 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LG전자(+29.93%), 현대오트모터(+24.80%), 삼성전자(+5.84%)가 올랐고, L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6.43%), LS(-6.20%), 대한전선(-4.92%)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